

姜靜一堂 삶의 樣相과 詩世界

김 미 선*

<目次>

I. 序論	IV. 靜一堂의 詩文學 內容
II. 『靜一堂遺稿』 概觀	1. 慕古의 工夫
III. 靜一堂 삶의 樣相	2. 素守의 意識
1. 婦德의 實踐	V. 結論
2. 安分의 處世	

<국문 초록>

본 논고는 조선시대 호서지역 여류 문인 중 한사람인 姜靜一堂의 삶과 시문학 세계를 『靜一堂遺稿』를 통해 고찰하였다. 정일당의 삶과 시 문학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靜一堂遺稿』가 남아 있다. 姜元會의 6張 1葉의 분량에 해당되는 「行狀」 내용에서 정일당의 모습을 생생히 만나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소략하게 드러난 면에 관심을 두고자 했다. 『靜一堂遺稿』 개관에서 서지사항과 원문의 誤字를 천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靜一堂의 삶에 드러난 樣相을 婦德의 實踐과 安分의 處世로 그 특징을 볼 수 있었다. 「行狀」에 기록되어 있는 정일당의 家系 및 삶 속에 그의 婦德의 實踐이 면면히 들어 있었다. 정일당의 시문학세계는 慕古의 工夫와 素守의 意識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정일당의 시문학 작품 속에는 閨房의 情緒는 찾아 볼 수 가 없었고, 오로지 성현의 가르침을 익혀 따르고자 하

* 청주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 hawoodang@hanmail.net

는 慕古의 공부에 힘쓴 내면이 아무런 꾸밈없이 간결하게 남아져 있었으며, 철저한 경전을 바탕 하였음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정일당의 학문의 깊이를 가히 짐작케 하였다. 또한 정일당이 평소 가장 주력했던 修身의 내용이 中和와 誠敬을 통한 素守였음을 그의 詩囊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學問·凡節·教育·愛·疏通의 處世·楷書 등 강정일당의 삶과 학문 세계를 필자의 얇은 식견으로 다 헤아려 낼 수 없었지만, 위와 같이 고찰한 바로 강정일당은 조선시대뿐 만이 아니고 현대적 의미에서도 家庭·社會·教育에 바람직한 女中君子의 表象이라 할 만하다.

【주제어】 강정일당, 교육, 정일당유고, 女中君子의 表象

I. 序論

본 논고에서는 조선시대 여류 문인 중 한 사람인 「姜靜一堂 삶의 樣相과 詩 世界」를 고찰 하고자 한다. 시공을 초월한 역사 속에서 여성의 몫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은 인류 역사의 존재로 확인 되는 바이다. 더욱이 우리나라 전통 유교 관념인 三綱·五倫의 德目 속 인류의 생명역사와 자녀교육의 지대한 역할은 여성의 몫이라 할 수 있다. 동양 고전 속에서 여성의 모범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 고대 周나라 文王의 어머니인 太任에게서 그 중요성을 절감 할 수 있다.

“태임의 성품이 단정하고 한결같으며 성실하고 장엄하여 오직 德을 행하였다. 문왕을 잉태함에 이르러 눈으로는 나쁜 색깔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으며, 입으로는 오만한 말을 내지 않으셨는데, 문왕을 낳음에 총명하고 성스러워, 태임이 하나를 가르치면 백을 아시더니, 끝내 주나라의 宗이 되시었다. 군자는 ‘태임이 태교를 하였다.’고 말하였다.”¹⁾

1) 『小學』, 「稽古」, “太任之性 端一誠莊 惟德之行 及其娠文王 目不視惡色 耳不聽淫聲 口不出敖言 生文王而明聖 太任教之以一而識百 卒爲周宗 君子謂太任爲能胎教”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바람직한 자녀교육의 배경에는 덕성스러운 어머니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여성과 어머니의 대명사로 申師任堂을 지칭함은 거론의 여지가 없다. 申師任堂의 堂號 역시 ‘태임을 스승으로 삼으라.’는 의미이니, 여성의 가장 큰 역할은 어머니이고, 그 어머니의 역할은 가정교육에 있고, 가정은 모든 사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역사 속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특히 여성의 삶과 학문에 유교의 전통 관념 속 많은 한계가 있었던 시기였다. 시대적으로 여성의 삶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여성의 몫을 온전히 일구어 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姜靜一堂(1772-1832)이다.

강정일당에 대한 先行研究業績²⁾으로는 예학을 바탕으로 한 그의 삶과 독실한 실천적 학문세계 등에 주목하여 女中君子로서의 자리매김을 하는데 훌륭한 논의들이 전개되어 왔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물에서 소략하게 드러난 부분을 위주로 탐색하고자 한다. 정일당의 품성함양과 女師의 모범을 실천한 삶과 문학의 내용을 고찰하여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인륜도덕, 가정교육, 품성소통의 제반 사회 인성교육 문제의 일단을 비추어 보고자 함에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두기로 한다. 이러한 정일당의 삶과 문학세계를 고찰 할 수 있는 자료로는 유일하게 『靜一堂遺稿』³⁾가 남아 있기에 본 연구 자료의 底本으로 삼는다.

2) 김남이, 「姜靜一堂의 ‘代夫子作’에 대한 고찰 -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글쓰기와 학문적 토양에 관한 보고로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평환, 「姜靜一堂 詩文의 내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 『濶知論叢』12집, 온지학회, 2005.

이영춘, 『한 조선 여성 지식인의 삶과 학문』, 가람기획, 2002.

李慧淳, 「姜靜一堂의 禮 담론 : 조선후기 女性知性史 서술의 일환으로」, 『語文研究』127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5.

이종목, 「강정일당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 『도서관』 통권 387, 국립중앙도서관, 2013. 장인자, 「강정일당의 문학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07.

3) 『靜一堂遺稿』는 필자가 본 논고의 연구 자료로 삼기 위하여 찾아 複寫한 자료로 筆寫本과 木活字本이 있다. 필사본은, 국립도서관 소장본과 충남대 소장본이 있고, 목활자

연구방향으로는 우선 정일당의 삶과 문학을 알아 볼 수 있는 자료는 『靜一堂遺稿』이다. 이에 문집에 대한 개관을 통하여 수록 작품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靜一堂遺稿』 개관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선행 연구에서 드러나지 않은 『靜一堂遺稿』의 原文 중 誤字를 정리하며 전반적 書誌事項의 개관을 하기로 하겠다.⁴⁾

이를 토대로 정일당의 삶과 문학에서 靜一堂의 삶에 드러난 樣相을 1. 婦德의 實踐 2. 安分の 處世로 나누어 고찰하고, 그의 시 시문학 세계의 내용연구는 1. 慕古의 工夫 2. 素守의 意識으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인성과 소통, 가정 및 사회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오늘날 우리사회가 강정일당의 삶과 시문학 세계를 통해 그가 보여준 내용에서 溫故의 治癒를 찾아 이를 知新의 明鏡으로 삼아 현대사회의 바람직한 소통 및 인성교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II. 『靜一堂遺稿』 概觀

『靜一堂遺稿』의 개관에서 먼저, 간행 경위, 書誌事項, 수록된 작품 내용, 원문의 誤字表 순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靜一堂遺稿』의 간행경위는 정일당의 사후 4년이 지난 1836년에 남편 尹光演이 간행하였다. “임중에 미쳐서 탄원이 문집을 간행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물자를 도와주어 마침내 『靜一堂集』1권을 찍어 냈다.”⁵⁾에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尹濟弘이

본으로는 충남대 소장본과, 한국문집총간 속집 111권에 수록되어 있는 영인본이 있다. 본 연구의 저본은 한국문집총간 속집 111권 영인본 『靜一堂遺稿』를 기본으로 삼는다.

4) 그간의 정일당 연구에 소략한 부분을 고찰하는데 다음과 같은 연구에 주력하였다. 『靜一堂遺稿』를 精讀하며 발견된 誤字가 16군데 정도 된다. 필사본, 목판본, 영인본, 영인본 DB 모두 誤字에 대한 검토가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없어 본 논고에서 정리하고자 한다.

5)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學校·女師徒辨證說」, “及歿 坦園爲謀刻集 人多助資 竟

쓴 「靜一堂遺稿序」를 통해 考證된다.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조그마한 책자를 내놓는데 『정일당유고』라고 쓴 것이었다. 눈물을 흘리며 나에게 말하길 “이것은 나의 죽은 아내가 지은 글로써 께작 속에 흩어져 있는 것을 주워 모은 것이다. 그는 일찍이 말하기를 ‘文章은 女子에게 해당한 일이 아니다.’하여 한 번도 께작 속에서 꺼낸 적이 없었다.” 지금 그 사람이 죽었다고 그가 살았을 때의 생각을 저버리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차마 아주 없애지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⁶⁾

윤제홍은 서문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의 문집을 만든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며, 또한 글을 짓는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소박을 맞은 조선시대 여류시인 중 한사람인李玉峯⁷⁾의 일화를 회상해 본다면, 남편이 문집간행을 도모하였다는 일은 더욱 믿기 어려운 경위이다.

다음은 서지사항이다. 서지사항을 논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사본에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底本¹, 충남대 소장 필사본을 底本², 목활자본 중에 충남대 소장본을 底本³, 한국문집총간 속집 111卷에 수록 되어 있는 영인본을 底本⁴ 라고 略稱하기로 한다. 국립도서관 소장본 底本¹의 특이 사항으로는 표지 제목으로 『靜一堂遺稿』순 이라고 기록 되어 있고, 우측에 ‘庚子暮春之月加衣’라고 기록 되어 있다. 庚子年 이전의 필사본을 표지만 다시 한 것이다. 1張 10행이며, 1行의 字數는 일정하지 않다. 또한 筆寫年度·筆寫者에 대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고, 筆體에 드러난 특징으로는 1人 筆寫로 판단되어 진다. 충남대 소장본 底本²도 筆寫年度·筆寫者 未詳이며, 특이사항으로 多人 筆寫

摺印 靜一堂集一卷”

6) 尹濟弘, 『靜一堂遺稿』, 『靜一堂遺稿序』, “忽一日袖出一小冊子 題曰靜一堂遺稿 泣謂余曰 此吾亡妻所著文字之收拾於巾箱中者 嘗自謂文章 非婦人事 未或出於藏 其人雖歿 不欲傷平日志 然亦終有所不忍湮沒者”

7) 생물연대 미상

本으로 판단되어 진다. 木活字本 충남대 소장본 底本·3의 특이사항은 「書·九張」1·2葉이 筆寫本으로 장정 되어져 있는 점⁸⁾이다. 한국문집총간 속집 111卷에 수록 되어 있는 영인본 底本·4의 특이 사항은 활자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組版 과정에서 글자가 거꾸로 조판되는 경우인데 한 글자가 발견되어 졌다⁹⁾. 자세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靜一堂遺稿』 / 姜至德 著

木活字本¹⁰⁾

刊行地未詳] : [刊行者 尹光演] , 1836

1冊 : 四周雙邊, 半郭, 22.5cm×14.7cm , 有界

10行 21字, 註雙行, 上下向白魚眉 , 30.5cm×19cm

다음은 수록된 작품내용을 살펴본다. 『靜一堂遺稿』 四種의 底本 수록 내용은 같다. 『靜一堂遺稿』는 尹濟弘의 崇禎紀元後 四甲午九月 戊子년에 쓴「序」가 맨 앞에 수록되어 있고, 「詩」· 37首, 「書」· 7篇 [與姜就如日會書 代夫子作, 與宗中書 代夫子作, 與宗人光周書 代夫子作, 與宗人釜山之謙 代夫子作, 與豐川宗人澤霖 代夫子作, 上舅氏權烏齋中寬慰書, 上夫子書] , 「附尺牘」· 62篇 , 「附別紙」· 2篇 [師門往復別紙 代夫子作, 答金富平鑠別紙 代夫子作] , 「記」·

8) 추측컨대 冊版을 찍는 과정에서 누락되어 필사로 그 부분을 채워 넣은 듯하다. 底本 1·2의 필체와는 모두 相異하다.

9) 내용은 뒤의 正誤表에 표기하기로 한다.

10) 한국고전번역원 자료실에 있는 『靜一堂遺稿』 凡例에 “本集은 著者의 夫 尹光演이 家藏草稿를 바탕으로 蒐集·編次하여 一八三六年 活字로 印行한 初刊本을 木板으로 覆刻한 重刊本으로 그 刊行經緯는 分明하지 않다고 하였다. 본 『靜一堂遺稿』는 초간본을 바탕으로 木板으로 復刻했다고 하였는데, 본 저본은 목판본이 아니라 목활자본이다. 목활자본의 간행 과정 드러날 수 있는 일례로 글자가 거꾸로 편집될 수 있는데 『靜一堂遺稿』 「附錄」二十五張 第一葉의 8行 17번째 글자 ‘經’자가 거꾸로 組版되어 간행되어졌다. 또한 版心내용에서 上白魚尾라고 하였는데 上下向白魚尾이다.

3篇 [先祖永隱公塋墓記 代夫子作, 晚醒齋記 代夫子作, 坦園記] , 「題跋」· 2篇 [書世牒後 代夫子作, 書外王考妣遺事後 代夫子作] , 「墓誌銘」· 3편 [孺人金氏墓誌銘 代夫子作, 殤女瘞誌 代夫子作, 孝子李君塘銘 代夫子作] , 「行狀」3篇 [前嫂孺人柳氏家狀 代夫子作, 外姑孺人安東權氏行狀 代夫子作, 恭人李氏行狀 代夫子作] , 「祭文」· 3篇 [祭無心翁洪公絲浩文 代夫子作, 祭族弟聖寬光德文 代夫子作, 祭留取子金公允秋文 代夫子作] , 「銘」· 5편 [筆筒銘, 案銘, 硯匣銘, 扇銘, 木鳥銘] , 「雜著」2篇 [思嗜錄, 硯說示李童子弗億] , 「靜一堂遺稿拾遺」· 詩」1篇, 「尺牘」· 20篇

『附錄』에는 「行狀」· 1篇 [崇禎後四 癸巳九月下泮 三從姜元會撰] , 「墓誌銘」· 1篇 [孺人晉州姜氏墓誌銘洪直弼撰] , 「祭文」· 3篇 [祭亡室孺人姜氏文 尹光演撰] , 「誄文」· 1篇 [孺人靜一堂姜氏誄文 姜元會撰] , 「挽章」 [姜元會, 姜昌會, 權用正, 李晉淵, 俞晦柱, 尹顯商, 李觀夏, 白東奎, 李宜鉉, 金炳雲撰, 任翼常, 權敬仁 撰] 「詩跋」 [靜一堂詩跋 權愚仁 撰] , 「筆帖跋」 [靜一堂筆帖跋 權用正 撰] , 「書」 [剛齋宋先生覆書略 二度] , 「書蹟」 [靜一堂 庚寅冬姜氏] , 「跋文」· 2篇 [靜一堂姜氏遺稿後 宋穉圭撰, 靜一堂遺稿跋 尹守慶撰] 의 내용이 수록 되어 있다.

『靜一堂遺稿』에 실려 있는 작품의 특이한 양상으로는 詩文의 대부분과 尺牘의 전체를 제외하고는 代夫子作이 거의라는 점과 정일당의 친필 遺墨이 실려 있다는 점이다. 代夫子作은 詩 9篇 · 書 5篇 · 別紙 6篇 · 記 3篇 · 題跋 2篇 · 墓誌銘 3篇 · 行狀 3篇 · 祭文 3편이다. 당시 조선시대 부인이 남편의 글을 代作한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는데 남편이 문집까지 편찬하고 代作 임을 밝혔다는 것은 정일당의 학문과 문장의 정도를 짐작케 하는 일이다. 다음은 底本1·2·3·4 및 고전번역원 DB의 원문 자료에서 발견된 誤字의 내용¹¹⁾이다.

11) 표에 제시하는 16군데 오자는 필사본·활자본 모두 誤記 되어져 있고, 표 1·8번은 고전번역원 DB에 바로 잡어져 있다.

『靜一堂遺稿』誤字一覽表

번호	張次 ¹²⁾	作品名	葉	行	字	誤字	正字	비고
1	「詩」·二	坦園	二	八 (註一行)	一	伐	代 ¹³⁾	DB 代
2	「詩」·四	遂錄以存之	二	九	六	慚	斷 ¹⁴⁾	
3	「尺牘」·九	尺牘	二	六	十三	訐	訴 ¹⁵⁾	
4	「尺牘」·十五	尺牘	二	三	十七	瘳	療 ¹⁶⁾	
5	「尺牘」·十六	尺牘	一	一	十七	棣	隸 ¹⁷⁾	
6	「行狀」·三十六	恭人李氏行狀 代夫子作	二	四	十九	動	勳 ¹⁸⁾	
7	「銘 雜著」·三十九	思嗜錄	二	七	十四	密	蜜 ¹⁹⁾	
8	「銘 雜著」·四十一	硯說	一	十	九	兄	況 ²⁰⁾	DB 況
9	「銘 雜著」·四十一	硯說	二	八	十八	斯	事 ²¹⁾	
10	「拾遺 尺牘」·二	尺牘	一	五	十二	己	氣 ²²⁾	
11	「附錄·行狀」·四	行狀	一	二	二十一	日	日 ²³⁾	
12	「附錄·墓誌銘」·十一	墓誌銘	一	八	一	己	己 ²⁴⁾	
13	「附錄·挽章」·二十	挽章	二	十	二	閨	閨 ²⁵⁾	
14	「附錄·挽章」·二四	靜一堂詩跋	二	十	二十一	思	師 ²⁶⁾	
15	「附錄·詩跋」·二四	靜一堂詩跋	一	一	十二	思	師 ²⁷⁾	
16	「跋」·一	靜一堂姜氏遺 稿後	二	一	十四	研	硯 ²⁸⁾	
17	「附錄·詩跋」·二五	靜一堂詩跋	一	八	十七	經	經	組版問題

12) 張次の 내용은 『靜一堂遺稿』 版心に 있는 題目과 張次를 기록하였다. 紙面上 版心의 내용에서 책의 제목 『靜一堂遺稿』는 생략한다.

13) 『靜一堂遺稿』, “伐夫子作丙戌” → 代夫子作丙戌

14) 『靜一堂遺稿』, “慚負聖賢期” → 斷負聖賢期

15) 『靜一堂遺稿』, “泣訐馬前” → 泣訴馬前

16) 『靜一堂遺稿』, “少若瘳飢” → 少若療飢

17) 『靜一堂遺稿』, “篆棣之精熟” → 篆隸之精熟

18) 『靜一堂遺稿』, “錄原從動” → 錄原從勳

19) 『靜一堂遺稿』, “以小盃斟酒 和密或桂糖之屬進之” → 以小盃斟酒 和蜜或桂糖之屬進之

20) 『靜一堂遺稿』, “兄於先王盛恩” → 況於先王盛恩

Ⅲ. 靜一堂 삶의 樣相

1. 婦德의 實踐

정일당은 영조48년(1772년) 10월 15일, 충청북도 제천 近右面 新村 [현재 봉양읍] 에서 태어나²⁹⁾ 純祖32년(1832년) 서울 藥峴里 坦園의 집 [현재 中林洞] 에서 享年 61세로 생을 마감³⁰⁾하였다. 墓所는 경기도 廣州 淸溪山 東麓 大旺面 遁退里에 자리 잡았다. 정일당은 晋州 姜在洙와 安東 權氏를 부모로 2남 1녀 중 외동딸로 태어났다. 世譜가 가깝게는 세조때 의정부 좌찬성을 지낸 晋山君 姜希孟의 후손으로 祖父 姜心煥과 父親은 모두 독실한 學行이 있었으나, 일찍 돌아가셔서 이름을 내지 못한³¹⁾ 隱逸之士의 삶을 살았다. 어머니 권씨도 淸江處士인 權瑞應의 따님으로 玉所山人 燮의 曾孫이고, 滲庵先生의 동생인 權尙明의 玄孫이다.³²⁾ 이로써 정일당은 친가 외가 모두 範節 있는 兩班家門이었다.

또한 나이 20세에 坡平 尹氏 光演에게 출가하였는데, 그의 字는 明直이고, 剛齋 宋穉圭를 스승으로 하였으며, 剛齋의 명으로 호를 탄원이라고 하였다.³³⁾

-
- 21) 『靜一堂遺稿』, “從斯於是” → 從事於是
 - 22) 『靜一堂遺稿拾遺』, “若同己 且睦于親戚” → 若同氣 且睦于親戚
 - 23) 『靜一堂遺稿附錄』, “日聞所不聞” → 日聞所不聞
 - 24) 『靜一堂遺稿附錄』, “盡已而已” → 盡已而已
 - 25) 『靜一堂遺稿附錄』, “齊閨周壺必稱姜” → 齊閨周壺必稱姜。
 - 26) 『靜一堂遺稿附錄』, “我東有思任允摯兩夫人” → 我東有師任允摯兩夫人
 - 27) 『靜一堂遺稿附錄』, “俱有德行 而思任傳吟詠 允摯播著述” → 俱有德行 而師任傳吟詠 允摯播著述
 - 28) 『靜一堂遺稿』, “老病濱死久廢筆研” → 老病濱死久廢筆硯
 - 29)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孺人以英宗壬辰十月十五日 生于堤川近右面新村第”
 - 30)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卒于漢師藥峴里坦園第 享年六十一”
 - 31)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祖諱心煥 考諱在洙 俱有篤行 蚤世不振”
 - 32)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妣安東權氏 淸江處士 瑞應之女 玉所山人燮之曾孫 滲庵先生仲弟參判尙明之玄孫也”
 - 33)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尹子名光演 字明直 師剛齋宋先生 剛齋命其號曰坦齋”

시댁인 윤광연의 가문은 文肅公 尹瓘의 후손으로 累代名臣과 學行으로 이름 있는 名門이었다. 시아버지는 自齋 尹東燁이며, 시어머니는 天安 全氏 全汝忠의 따님으로 號는 只一堂으로 그의 行狀은 剛齋가 지었다고 한다.³⁴⁾ 지일당 역시 詩文으로 며느리 강정일당과 화답이 될 만큼 여류문사의 자질이 뛰어났다. 다만, 친정이나 시댁 모두 전통 양반의 가문으로 문학적 소양도 뛰어난 집안 후예였지만, 혼례를 치르고도 3년 동안 시댁으로 들어가지 못할 만큼 매우 곤궁하였다. 친정살이 3년 사이에 시아버지 윤동엽이 사돈집에 다니러 온 적이 있었는데 십여 일을 묵으면서 그의 며느리인 정일당이 살림하는 모습을 살핀 다음 우리 집이 이제, 다시 일어서게 되었구나 하며 기뻐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이렇게 정일당을 며느리로 맞은 것을 기뻐하였던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가로 들어오기도 전에 작고하였다. 이에 정일당은 시댁인 尹光演의 집안 또한 名門이었고, 윤광연의 外家도 學行이 있는 집안이었음이 드러난다.

그의 이름은 至德이고 호는 靜一堂이다. “어머니가 임신 중에 꿈에 두 聖妃가 그 집에 와서 모시고 있는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지극한 덕이 있다. 지금 너에게 말기노라.’ 라고 하였다. 그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인을 출생하니 그 어머니는 마음으로 대단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꿈을 따라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유인은 성품이 貞靜하고 端一하며 喜怒를 얼굴색에 잘 드러내지 않았으며, 어려서 부터 여러 아이들과 장난하지 않았다.³⁵⁾고 하여 至德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친가의 선조 강희맹(1424-1483)은 뛰어난 문장가였으며 부지런하고 치밀한 성격으로 博學多識하며 소나무대나무 그림과 산수화를 잘 그렸다고 알려져 있으니, 親家の 文學傳統과 外家の 性理學 思想이 정일당의 견고한 성장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家系의 배경을 갖은 정일당의 삶에 드러난 樣相을 보며, 우선 婦德

34)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妣天安全氏 生員汝忠女也 號只一堂 其行蹟有剛齋語”

35)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母夫人有娠 夢兩聖妃降其室 指侍者一人曰 此有至德 令以付汝 既而孺人生 母夫人心異之 遂因夢而名焉 性貞靜端一 喜怒不形於色 自幼不與羣兒戲”

의 義理를 들 수 있겠다. 尹濟弘은 「靜一堂遺稿序」에서 “옛날에 어진 부인으로서 후세에 이름이 난 사람들은 혹은 孝烈이나, 德行이나 言語의 한 가지 훌륭한 것만으로도 남의 칭찬을 받은 이야기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義理를 정밀하고 해박하게 알고, 학력이 깊은 지경에 이른 것이 이 책과 같은 사람은 어찌 부인들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겠는가?”³⁶⁾ 하였다. 이렇듯 조선시대 500년 역사에서 여류시인으로서 꼽히는 사람은 許蘭雪軒·申師任堂·李玉峯 등을 들지만, 文集까지 남긴 정일당은 단순한 여류 문인 뿐 만이 아니라 義理에 밝은 道學者로서 인정된 내용을 尹濟弘의 평가를 통해 그 실체를 알 수 있다. 이러한 그의 知行合一의 경지는 婦德의 실천으로 드러나 있다. 「上夫子書」에서 짚어 본다.

엎드려 여쭙옵나니, 밤사이 병환은 어제에 비하여 어떠하십니까? 회천으로부터 돌아오신 뒤로 가만히 칭송함을 말씀드리고자 하였으나, 다만 병환에서 겨우 깨어 나서서 정신이 어두울 뿐만이 아니라 생각건대 여행을 다녀오신 나머지 수고롭게 해드려 손상을 드릴까 해서였습니다. 또 날이 다하도록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틈을 내서 여쭙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조금 차도가 있으신 듯하고, 빈객들도 흠어지고 마침 술과 안주가 있어서 공경히 새벽 인사를 드린 뒤에 아침상을 들고 나가 그 자리에서 아뢰려고 했습니다만, 해가 이미 점심때가 되었는데도 오히려 세숫물 명이 없으시기에 가만 생각건대, 몸 안에 불편하신 것이 아직도 평상시를 회복하지 못하셨는가 하고 매우 걱정이 되었습니다. 듣자하니 이번 선생님께 가서서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라, [非禮勿視聽言動]’는 글자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그 글을 서재의 각판으로 만들어 걸려고 하신다 하니, 참으로 기쁘고 다행한 일입니다. 이 四句는 孔子께서 안자의 묻는 말에 대답하신 것이요, 안자는 종신토록 두고 여기에 힘을 써서 성인이 된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夫子께서는 공자와 안자께서 주고받은 중요한 말씀과 또한 조상께서 일찍이 이것을 써서 스스로 힘쓰시고 후손들을 가르치셨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夫子께서는 공자와 안자의 傳授의 중요함을 우러르시고, 선대의 경계하신 바의 지극함을 생각하시고, 선생님께서 勉勵하신

36) 尹濟弘, 『靜一堂遺稿』, 「靜一堂遺稿序」, “古昔哲婦賢媛之名於後世者 或以孝烈德行言語一節之美 焜耀人耳目何限 而至於義理之精解 學力之深造 如此卷者 豈易得於閨閣之內也”

뜻을 받으셔서 밤낮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항상 눈을 여가에 두기를 그치지 마옵소서. 내 마음이 좋아하는 바가 천리에 부합되지 않음을 이룬 것입니다. 예라는 것은 천리에 부합되는 문채이니 반드시 먼저, 어느 것이 禮이며, 어느 것이 非禮인지를 밝히셔서 그런 연후에 용맹스럽게 자신의 사욕을 끊어버리고 한결같이 천리를 따른다면, 꼭 가히 도에 이를 것이니, 감히 이로써 우러러 권면하옵니다. 나머지는 뵈올 때 이어서 여쭙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³⁷⁾

정일당이 사랑채의 남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보면, 五倫의 행실을 엄격히 하면서도 세세한 婦德의 실천적 면모가 곳곳에 드러나 있다. 사랑채 출입을 삼가 하면서 늘 편지로 또는 짧은 글로 끊임없이 소통하였다. 위의 편지에서는 남편이 선생님 문하에 다니으며 ‘非禮勿視聽言動³⁸⁾’의 글자를 받아와 서재에 편액을 만들어 걸려고 한다는 것에 기쁘고 다행한 일이라고 勸勉 한다. 四勿의 내용은 조상께서 일찍이 힘쓰시고 후손들을 가르치신 바이고, 선생님께서도 勉勵하신 뜻이시니 밤낮을 게을리 하지 마시고, 항상 눈을 여가에 두기를 그치지 않을 것을 경계하였다. 또한 禮라는 것은 천리에 부합되는 문채이니 반드시 먼저, 어느 것이 禮이며, 어느 것이 非禮인지를 밝히셔서 자신의 사욕을 끊어버리고 한결같이 천리를 따른다면, 도에 이를 것이라는 添言으로 책선지도를 하였다. 정일당은 十三經을 두루 읽어 침잠해 심오한 뜻을 찾아내었고, 매일 홀로 있으면서 읊고 외웠다고 한다. 이에 전적을 널리 보아 古今治亂의 지취를

- 37) 『靜一堂遺稿』, 「上夫子書 庚寅冬」, “伏問夜間愼侯 比昨何如 自懷還次後 竊欲從頌有所仰達 而非但賤疾纏旣 神輒眩昏 竊慮撼頓之餘 致有勞損 且鎖日客撓 未暇稟質 今朝則身恙稍間 賓客已散 適有酒饋 恭俟晨謁後 仍爲進饋 隨叩拜陳矣 日已响午 尙無沃盥之命 伏想體內愆和 猶未復常 伏慮萬萬 竊聞今番師門之行 受來非禮勿視聽言動字 將以刻揭書室 伏切喜幸 此四句 孔聖所以答顏子 而顏子所以終身請事 進於聖人也 且王舅府君 嘗書此自勉 以教後人 伏願夫子仰孔顏傳受之重 念先世箴戒之至 承師門勉勵之意 日夜靡懈 常目在是 未已者 吾心所好 不合天理之謂 禮者天理之節文 必先明其何者禮 何者非禮 然後勇斷己私 一從天理 則可至於道矣 敢以此仰勉 餘在拜時續稟 不備”
- 38) 『論語』, 「顏淵」, “顏淵問仁 子曰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 天下歸仁焉 爲仁由己 而由人乎哉 顏淵曰請問其目 子曰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顏淵曰回雖不敏 請事斯語矣”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았다.³⁹⁾고 하니 정일당은 이미 四書에 해박하고 禮學에 대한 識見을 두루 갖춘 여성 지식인 이었던 것이다.

정일당은 남편이 학문과 덕성 수양에 전념하도록 권면하고 과오가 있을 때에는 責善之道를 아끼지 않았던 실증적 내용이 쪽지 편지에 전한다. 남편에게 아내 정일당은 스승이나 학업을 같이 연마하는 존재였던 것이다. 정일당은 남편과의 比翼鳥 連理枝⁴⁰⁾의 인연을 학문으로써 더욱 절차타마하는 부덕을 행하였으니, 姜元會는 「行狀」에서

대체 사람이 형제가 있으면 埳窳로 서로 화답하고 봉우가 있으면 鐘呂로 서로 융합하는 법이니, 이것은 모두 사람이 세상을 지내는 도리에 가장 즐거운 일들이다. 그러나 옛날부터 이 즐거움을 가진 사람은 그다지 많지 못하고 간혹 있었다. 그런데 허물며 한 집안에 좋은 부부가 서로 만나서 조용하고 한가로운 사이에도 어진 아내가 항상 깨우쳐 주고 늘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이 모두 도움이 되게 한다면, 그 얼마나 즐겁겠는가?⁴¹⁾

라고 하며, 어진 아내가 항상 깨우쳐 주며 일상적으로 나누는 말들이 모두 도움이 된다면 그 얼마나 至樂의 삶이겠는가라고 하였다. 『靜一堂遺稿』에 실린 「尺牘」 76편은 모두 남편에게 보낸 짧은 편지들로, 제목 없이 간명하게 쓴 쪽지편지이다. 내용에서 정일당이 행한 부덕의 실천면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주로 서당에서 학동들을 가르치는 訓導의 방법, 일상생활에서 경계해야 할 것, 성찰의 권면, 학문적 의견 교류, 친족 간의 화목 등에 관한 실천 내용이다. 「尺牘」의 맨 마지막 내용을 보면, “홍세마 직필께서 말씀하시길,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士友 중에 능히 이와

39) 姜元會, 『靜一堂遺稿』, 「行狀」, “遍讀十三經 沉潛紬繹 每獨處吟誦 又博觀典籍 古今治亂之迹 瞭如指掌”

40) 白居易, 『唐詩選』, 「長恨歌」, “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41) 尹濟弘, 『靜一堂遺稿』, 「靜一堂遺稿序」, “夫人有兄弟而埳窳相和 有朋友而鐘呂相合 是皆人倫中至樂 而自古人之有此樂者 絕難得而或有之 況乎家室之內 夫婦相得 簪珥之警 不絕於燕閑 茶飯之說 皆足以資益 則其爲樂何如也”

같은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진실로 진실한 마음으로 진실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반드시 능히 始終如一하여 겉과 속이 서로 합치될 것이니, 그것으로 가히 써 그 사람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⁴²⁾라는 쪽지 편지의 내용에서 정일당은 남편에게 진실한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일을 행하는 士友와 교류 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한 마음을 始終如一하면 表裏相合이 되는 행실을 하는 士友를 알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조언하였다.

정일당이 또 남편의 학문을 권면한 일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또 의리를 버리고 생업만 경영하는 것은 도를 터득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만 못하니,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바느질과 길쌈을 할 줄 아오니, 마땅히 죽이라도 먹는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부자께서는 성현의 글을 읽고 집안 살림은 걱정하지 마소서. 明直은 이 말에 감동되어 四書와 程子 朱子の 글을 읽게 되었다. 유인은 항상 가위와 자를 들고 한쪽에 앉아서 바느질을 하며 글 읽는 소리를 듣고는 마침내 곧 암송하고, 묵묵히 깊은 뜻까지 알았다.”⁴³⁾ 라고 하니, 부부가 함께 본분사에 충실하면서도 나란히 학업을 행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남편 또한 修身한 선비로 평생 그 아내를 스승으로 삼았다⁴⁴⁾고 하였다. 이와 같이 『靜一堂遺稿』에 남아 있는 정일당의 行蹟을 살펴본즉, 정일당의 삶 자체가 婦德의 實踐 樣相으로 드러남을 확일 할 수 있었다. 다음은 安分の 處世이다.

2. 安分の 處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일당은 명문가에서 태어났지만, 가문이 기울어

42) 『靜一堂遺稿』, 「尺牘」, “洪洗馬 直弼 云以實心行實事 士友中能如是者幾人 苟有實心實事 則必能終始如一 表裏相合 斯可以知其人矣”

43) 洪直弼, 『靜一堂遺稿』, 「孺人晉州姜氏墓誌銘」, “勸其居業曰 人而不學 無以爲人 與其棄義而營生 不若聞道而安貧 妾雖不才 粗解針績 當謀饘粥 願讀聖賢書 無以家務累心 明直感其言 讀四子及程朱書 孺人每手執刀尺 隅坐而聽 遂卽闇誦 默契奧旨”

44) 李觀夏, 『靜一堂遺稿』, 「挽章」, “尹子修身士 平生師其婦”

가난을 벗어 날 수 없었고 출가한 시대도 가난하였으며, 게다가 病弱하여 평생 가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靜一堂遺稿』를 통한 그의 삶을 들여다 볼 때, 安分自足하는 處世는 가히 修身의 정도를 짐작하게 한다.

근세 정일당 강씨가 있는데 윤광연의 아내이다. 또한 능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고, 『정일당집』 1권이 세상에 전하여 진다. [강씨는 본관이 진산으로 호는 정일당이다. 탄원 윤광연에게 출가하였다. 乳疾 때문에 자식을 두었으나 기르지 못하였다. 집이 매우 가난했지만 문장에 능했고, 더욱이 예학에 우수하여 그 지아비를 권면하였다. 집은 한갓 사방 벽만이 있고, 학도들을 가르쳐 생활 하였다. 약현의 김씨 자제들이 대부분 나이가 배웠다. 임종에 미처서 탄원이 문집을 간행할 것을 도모하였는데, 사람들이 대체로 물자를 도와주어 마침내 『靜一堂集』 1권을 찍어 냈다. 노호에 시는 처사 오희상이 그 문집에 발문을 썼다.⁴⁵⁾ 윤군은 노호의 문하생이다.⁴⁶⁾

李圭景은 「學校·女師徒辨證說」⁴⁷⁾에서 위와 같이 정일당은 능히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女師라고 하였다. 이점을 미루어 보아 정일당은 가난한 삶 속에서 남편의 서당 학동을 함께 돌 본 것으로 추정되어지고 학도들을 가르쳐 생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이 사방 벽만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 했지만, 문장을 잘했고, 예학에 우수하여 남편을 권면하였으며, 乳疾 때문에 병약하여 자식을 두었으나 기르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정일당은 가난한 살림이지만 처지에 자족하며 남편을 내조하고 학동들을 돌보며 안분지족한 처세의양상이 「尺牘」 곳곳에 보인다.

45) 李圭景은 吳熙常이 『靜一堂集』에 「跋文」을 썼다고 하는데 『靜一堂遺稿』에 실려 있지 않다.

46)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學校·女師徒辨證說」, “近世有靜一堂姜氏 尹光演室也 亦能教授生徒 有靜一堂集一卷行于世 【姜氏晉山人 號靜一堂 歸于坦園尹光演 以乳疾子而不育 家甚貧 能文 尤長禮學 勸勉其夫 家徒四壁。授徒以活 藥峴金氏子弟 多就學焉 及歿 坦園爲謀刻集 人多助資 竟擲印『靜一堂集』一卷 鷺湖吳徵君熙常跋其『集』尹君 鷺湖門生也】”

47) 『五洲衍文長箋散稿』는 이규경이 충주·서천 등 충청도 일대의 농촌에서 생활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각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기록한 글들을 모은 것으로 이해된다.

어느 날 한 노파가 유광연의 은혜에 보답으로 쌀과 고기를 가져왔는데 정일당은 “우리 남편께서는 일찍이 7일 동안이나 식량이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에 千兩 돈을 가져 온 것도 받지 않으셨는데, 지금 어찌 그대의 물건을 받으시겠습니까? 48)라고 하니, 노파는 정일당의 처신에 감탄을 하였다고 한다. 또한 남편에게 우리가 만약 받으면 남을 조금 도와주었다고 댓기를 받는 것 같으므로 그렇게 처리 했으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을 전했다. 이와 같이 정일당은 아무리 가난해도 타인의 후의가 넘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어느 날 손님이 아침에 떠나시는데 왜 붙잡지 않으셨는가 하며, 보통 객과도 아니고 賢人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신 이유가 賤妾의 病中 수고를 염려해서 이신가 하며, “오늘날 손님을 접대하는 예절은 조상을 받드는 예절에 다음가는 일이어서 사람 집의 大事이기에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49)라고 말한 부분은 가난하지만 손님 대접에 정성을 극진히 쏟은 처신의 모습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친정집 동생이 찾아 왔을 때 남편이 밥을 지으라고 명하자 정일당은 媿叔이 와 계신지 열흘이 가까워 옴에 죽도 거르시게 한 적이 있는데 “남편의 이런 말씀은 처 형제를 자기 친족보다 친절하게 대우하는 것이 되고, 저로 말씀드리자면, 친정 형제를 시집 일가보다 중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50) 라고 말한 처세는 한 집안의 며느리이자 아내로서 집안을 꾸려가는 범절에 있어 義理를 순히 여겨 따르고 사사로운 감정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내가 진실한 덕이 있으면 남이 비록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무슨 손해가 있으며 또한 내게 진실한 덕이 없으면 아무리 허망된 명예가 있은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하며, 옥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 돌이라 해도 玉에는 손해가

48) 『靜一堂遺稿』, 「尺牘」, “夫子嘗七日絕粒 而却千金之貲 今豈受汝之物乎”

49) 『靜一堂遺稿』, 「尺牘」, “今接賓之禮 次於奉先 人家之大事也 切不可少忽耳”

50) 『靜一堂遺稿』, 「尺牘」, “以夫子而言之 則妻兄弟親於己族 以妻而言之 則私兄弟重於夫黨”

없으며, 돌이 여기 있는데 사람들이玉石이라 해도 돌에는 이익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에 근심하지 말라.”⁵¹⁾고 하였으니, 『論語』에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으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⁵²⁾하는 聖賢의 處世法을 몸소 실천한 실례라 하겠다. 남편의 처세법으로도 “군자가 처세함에 消長의 이치와 사물의 변화를 마땅히 추론해서 궁구해야 한다.”고 내조의 말을 하였다.⁵³⁾

羨湖선생의 후손이 찾아 왔을 때 마침 없는 것이 많아서 마음대로 대접하지 못하여 마음이 답답했다며 훌륭한 군자인 벗과의 처세를 권고하기를 “서로 대하기를 지극히 간절하고 자상하게 해서 교류함을 더욱 힘쓰라.”⁵⁴⁾고 하였다. 『論語』에서 “자로가 묻기를 ‘어찌해야 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하니, 공자께서 ‘간절히 노력하며, 화목하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 벗에게는 간절하게 격려하고 형제에게는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셨다.”⁵⁵⁾에서 공자님이 말씀하신 봉우와의 처세법 切切惻惻의 가르침을 본받아 정일당은 아무리 가난해도 봉우에 대한 대우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安分の 처세를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서당에 공부하러 오는 학동에 대한 훈도의 처세이다.

근손이 비록 질박하여 중용지도를 행하는 데에는 흠집이 있으나, 오히려 걸치레만 좋아서 본바탕을 멸하는 것 보다는 낫습니다. 입으로 말한 바가 있으면, 반드시 그 말을 실천하고, 조상을 받들고 집안을 지키는 것에 이 아이를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에 그보다 더 나은 아이도 나올 것 같지 않으니, 바라건대 이끌어 가르쳐서 하여금 성취하도록 하소서. 또 이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조모가 또 성품이 엄해서 항상 부자와 저 보기를 그 부모와 같이 여기고, 십리나 되는 강과 들을 지나오기를 비바람과 춥고 더운 때를 피하지 않고, 몸소 밥을 싸가지고 와서 종일 모시고 있습니다.

- 51) 『靜一堂遺稿』, 「尺牘」, “無恤乎人之知不知也”
- 52) 『論語』, 「學而篇」, “人不知而不慍 不亦君子乎”
- 53) 『靜一堂遺稿』, 「尺牘」, “君子處世 消長之理 事物之變 所當推究者也”
- 54) 『靜一堂遺稿』, 「尺牘」, “請相對切惻 以爲交勉之地”
- 55) 『論語』, 「子路篇」, “子路 問曰何如 斯可謂之士矣 子曰切切惻惻 怡怡如也 可謂士矣 朋友 切切惻惻 兄弟怡怡”

그 형용을 생각해 보건대, 번번히 눈물을 떨구고 있다이다.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혹 과실이 있거든 자세히 타일러 주시고 절대로 도외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⁵⁶⁾

서당의 한 학동이 질박하지만 겉치레가 없으니, 오히려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할머니 또한 너무 엄격하니 정일당 부부를 마치 부모처럼 여기는 제자에 대한 처세에 대하여 남편에게 과실이 있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세히 타일러 주고 절대로 범범히 여기지 말라고 당부한다. 손수 밥을 싸가지고 매일 같이 십리의 강과 들을 지나 서당에 와서 종일 모시고 공부하는 학동이 간간히 눈물을 떨구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애처로이 여겨 남편에게 특별히 훈도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으니, 오늘날의 모든 학교 교육에서도 본받을 師道라 할 수 있다.

또 어느 학동이 가져온 물건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을 하며 그 아이 집에서는 네끼를 끓이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세끼밖에 끓이지 못했으니, 받을 수 없으며 “비록 한 되의 쌀 한푼 동전의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의리에 곧 편치 않습니다.”⁵⁷⁾라는 정일당은 아무리 가난해도 작은 일에 더욱 의리를 지키는 처세를 하였으며, “공자님의 말씀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옳지 않은 부귀와 귀함은 나에게서 뜯 구름과 같다.”⁵⁸⁾ 라고 말하였다.⁵⁹⁾ 정일당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가난하였는지 다음에서 살펴본다.

56) 『靜一堂遺稿』, 「尺牘」, “謹孫雖質勝而欠於中行 然猶勝於文勝而減質矣 此兒口有所諾 必踐其言 奉先守家 可恃此兒 而堂內無出其右者矣 幸望引而教之 使得成就焉 且此兒幼而失母 祖母又性嚴 常視夫子與我 猶其父母 十里江郊 不避風雨寒暑 身齋糗糧 夙宵來侍 念其形容 番番零涕矣 此兒小或有過 詳細開諭 切勿外視 如何如何”

57) 『靜一堂遺稿』, 「尺牘」, “雖是升米分銅之小 義則未安”

58) 『論語』, 「述而篇」, “子曰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59) 『靜一堂遺稿』, 「尺牘」, “不有孔夫子之言乎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

밥을 하지 못한지가 오늘이 3일째입니다. 서당의 학동이 마침 호박 넝쿨을 걷어 왔는데 그 열매가 주먹만한 것이 두어 개 달린 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을 썰어서 국을 끓였기에 한잔 술을 마련하려 했으나, 언질 못했습니다. 단지 국만을 올리오니 황송스럽고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⁶⁰⁾

서당에 와서 공부하는 학동이 선생님이 끼니를 잊지 못하시기에 호박넝쿨을 걷어 온 소박한 정성에 마음이 몽클해진다. 마침 넝쿨에 달려있는 주먹만 한 호박을 썰어 국을 끓여 남편에게 올리면서도 술 한 잔을 함께 드리지 못함을 황송하게 생각하며 가난하지만 분수에 자족하는 삶이었다. 정일당은 울타리 안의 꽃나무를 밖의 花園에 옮겨 심으며 “봉선화는 손톱에 물들이는 것인데 저는 성품상 좋아하지 않기에 아울러 옮겨 심어 주심이 어떨겠습니까⁶¹⁾” 하며 탈속한 처세를 한 내용이 처처에 보인다. 가난을 淸貧의 樂으로 여겨 자족한 삶을 살아낸 정일당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IV. 靜一堂의 詩文學 內容

1. 慕古의 工夫

정일당의 시문학 작품 속에는 조선시대 일반적 여류시인들의 공통된 閨房의 戀情이나 哀傷의 情緒는 찾아 볼 수 가 없다. 오로지 성현의 가르침을 익혀 따르고자 하는 女中君子로서 儒學的 이념 아래 慕古의 공부에 힘쓴 내면이 아무런 꾸밈없이 간결하게 남아 있으며, 詩語 하나하나를 철저히 典故에 바탕하였다. 정일당의 한시에서 慕古의 工夫 내용으로 찾아 본 것은 聖賢을 흠모하

60) 『靜一堂遺稿』, 「尺牘」, “不炊今三朝矣 書童適捲南瓜蔓以歸 搜得其實如拳者數枚 切而爲羹 謀一盃酒不得 只以 羹獻 不任惶歎”

61) 『靜一堂遺稿』, 「尺牘」, “鳳仙花所以染指甲者也 妾性不喜 此并爲移出如何”

고, 학문을 본받고자 하여 一心으로 工夫하며 남긴 작품들 이니 성현의 말씀이 그대로 用事 되어져 있다. 鄭琢(1526~1605)은 「慕古」에서 “마음을 보존함은 敬에 달려 있어서 군자는 밥 먹을 겨를도 없었네.”⁶²⁾ 라고 하였다. 退溪도 “젊어서부터 옛것을 존모하는 마음만 두었다.”⁶³⁾라고 하였다. 정일당이 성현의 경전을 바탕으로 공부한 내용 이다. 먼저, 「除夜偶作」⁶⁴⁾이다.

古聖傳斯道	옛 성인이 이 도를 전해 주셨으니
人人所共由	사람들마다 함께 말미암는 바이네
心月印寒水	마음은 달이 한수에 찍힌 듯하여
精光炯千秋	환한 그 빛은 천년토록 빛나리라
相傳一敬字	서로 하나의 敬자 전하여 왔으니
關鍵孰能抽	관문의 열쇠 누가 능히 열겠는가?
驚遠徒虛勞	멀리 달리면 다만 헛 수고 뿐이니
力進須近求	힘써 나가 짐짓 가까운 것 구하라
終身宜自強	종신토록 의당 스스로 힘쓸 것이니
望道敢遲留	도를 바라보고 감히 머물러 있으랴?

12구에서는 옛 성인이 도를 전해 주셨기에 사람들이 다 공부하여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이라 하였다. 34구는 “주자의 도는 黃榦에게 전수되고 공자의 학문은 曾子에게 전해졌으니, 추월이 한수에 비치듯 그 원류가 깨끗하고 맑다네”⁶⁵⁾라고 하였듯이 학문을 하는 선비의 근본에 바탕한 정일당의 慕古 정신이다. 가을 달빛이 차가운 물에 비치는 것처럼 성현이 전해 준 도는 明澄하기에 깨끗하고 고요히 하여 그대로 들여다보면 저절로 배워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退溪古宅의 ‘秋月寒水亭’ 또한 후학들이 그의 道學을 기려 세운 정자로 朱子

62) 鄭琢, 『藥圃集』, 「慕古八絕」의 其二, “存心惟在敬 君子不遑食

63) 李滉, 『退溪集』 권10, 「與曹樾仲(植)」, “滉資稟朴陋, 又無師友之導, 自少徒有慕古之心.”

64) 『靜一堂遺稿』, 「除夜偶作」

65) 『弘齋全書』, 「祭文·先正文純公權尙夏追配考巖書院致祭」

께서도 가만 앉아 생각하니, “천년토록 전해오는 도의 마음이 가을 달이 맑은 물에 비치는 듯 하네.”⁶⁶⁾라고 하여 孔孟의 道統을 이어받은 정신을 계승하여 퇴계의 제자들도 선생의 도통을 ‘秋月寒水’와 같다고 한 이치와 같다.

56구에서는 성현의 도에 ‘敬’一字가 전하여 왔으니, 누가 우리 도의 관문을 열 수 있겠는가? 하였다. “군자는 공경하지 아니함이 없다.”⁶⁷⁾ 居敬窮理를 통하여 매사를 조심하여 마음의 덕을 밝힌 뒤에 성현의 도를 제대로 이어 받을 수 있는 것이다. 7,8구에서는 성현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멀리 치달리기만 하다면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 할 것이니, 힘써 나아가기를 가까운 것부터 구하라고 하였다. 『論語』에도 “널리 배우고 뜻을 굳게 하며, 간절히 묻되 가까운 데부터 생각한다면 仁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⁶⁸⁾라고 하여 ‘切問而近思’를 공부 방법으로 하였다. 9,10구에서는 몸을 마칠 때까지 이러한 성현의 도를 이어받는 공부에 스스로 힘쓰고 쉬지 말아야 한다.⁶⁹⁾고 하였다. 이렇게 부지런히 힘써서 도를 터득하게 되면 짐짓 뒤로 물러나거나 하는 일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이고, 쉽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정일당은 慕古의 工夫 방법을 이와 같이 술회하였다. 「自勵」⁷⁰⁾에서는 이러한 공부에 스스로 힘쓸 것을 다음과 같이 詩囊에 남겼다.

休令好日月 좋은 시절의 무수한 시간들로 하여금
 游浪斷送虛 놀고 방랑하여 결단코 허송하지 마라
 宜鑑不學者 의당 거울삼을 것은 배우지 않은 자가
 枯落歎窮廬 고락되어 궁한 집에서 탄식함을 바라

스스로 학문에 힘쓰고자 함이다. 시의 전반부에서는 朱子 「勸學詩」⁷¹⁾에서

-
- 66) 朱子, 「齋居感興」, “惟恭千載心 秋月照寒水”
 - 67) 『禮記』, 「曲禮上」, “君子毋不敬”
 - 68) 『論語』, 「子張」, “子夏曰, 博學而篤志 切問而近思 仁在其中”
 - 69) 『易經』, 「乾卦象傳」, “君子以自彊不息”
 - 70) 『靜一堂遺稿』, 「自勵」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정일당의 스스로 공부하기 좋은 젊은 시절을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에 대한 경계 이다. 그리고는 마땅히 거울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시의 후반부에서 제시 했다. 그 내용은 諸葛武侯가 아들에게 준 글⁷²⁾에서 그 來處를 볼 수 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고서 공부하지 않은 자가 늙어 고락의 신세가 되어 궁색한 집에서 탄식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거울삼아야 한다고 했다. 방탕한 마음을 경계하여 원대한 뜻을 이루려면 시간을 허송하지 말고 부지런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贈朴仲輅秉殷 代夫子作」⁷³⁾ 이다.

志行雖貴勤 뜻을 행함에 비록 근면함을 귀히 여기나
門路須尋正 학문 길을 모름지기 바르게 찾아야 하네
可久終成功 가히 오래하면 마침내 성공을 할 것이니
爲山與鑿井 산을 만들거나 우물을 파는 일과 같다네.

朴仲輅에게 준 代夫子作이다. 여기에서도 오로지 학문에 정진해야 하는 길에 대하여 슬회하였다. 起承句에서 뜻을 행하려는 데에는 물론 부지런한 것이 으뜸이라 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부지런히 행하기만 한다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門路를 잘 찾아서 학문의 바른길로 들어서야 함을 말하였다. 轉結句에서 그 바른 門路를 성현의 가르침 爲山과 鑿井에서 찾아 주었다. 『論語』에 “학문을 譬喻하자면 다음과 같다. 만일 흙을 모아 산을 쌓는데 한 삼태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치는 것도, 내가 그치는 것 이며, 또 비유하자면 평지에 비록 한삼태기 흙을 부었더라도, 그 나가는 것도 내가 나가는 것이다.”⁷⁴⁾라고 하였다. 『書經』에도 “이흙 길 산을 만드는데 그 공이 흙 한 삼태

71) 朱子, 「勸學詩」, “少年易老學難成一寸光陰不可輕 未覺池塘春草夢 階前梧葉已秋聲”

72) 『諸葛武侯集』, 「誡子篇書 諸葛亮給子書」, “非學無以廣才 非志無以成學 怠慢則不能勵精 險躁則不能治性 年與時馳 意與歲去 遂成枯落 多不接世 悲守窮廬 將復何及”

73) 『靜一堂遺稿』, 「贈朴仲輅秉殷 代夫子作」

기에서 이지러진다.” 하였듯 정일당은 학문의 正道를 一簣에 두어 조금의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고 志行의 성공 여부는 자신에게 달려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학문의 정도로 鑿井을 들었는데 太平聖代를 謳歌한 擊壤歌⁷⁵⁾ 속에 鑿井이 있지만, 정일당이 말한 鑿井은 우물을 파되 중간에 그쳐야 아무소용 없고 샘물이 있는 곳까지 닿아야 한다는 뜻을 말한 것이다. “우물을 파서 샘까지 미칠 것을 기약하고, 아홉 길 산을 만들 것을 맹세 하였네”⁷⁶⁾의 詩句는 학문 속 착정의 正道로 정일당의 慕古 工夫의 길이라 하겠다.

2. 素守의 意識

옛 先人の 수양의 경지 중 한 모형으로 素守之意를 들 수 있겠다. 선비는 아무리 어려워도 평소의 지킴이 있었다. 學問이 素守⁷⁷⁾라고 한 사람도 있다. 정일당의 시에서 평소 가장 수양하고자 했던 지킴은 中和와 誠敬이라 하겠다. 먼저 「元朝敬呈夫子」⁷⁸⁾에서 본다.

人苟未聞道	사람이 진실로 도를 깨치지 못한다면
不死亦非慶	죽지 않아도 또한 경사가 아니 라네
惟將夫子訓	오로지 부자의 가르쳐 주심을 가지고
一心盡誠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과 경을 다하라

남편에게 올린 시이다. 성현의 가르치심을 오로지 誠과 敬으로 다 할 것을 勸勉하는 정일당의 平素 지키는 마음이다. 起承句에서 사람이 진실로 도를 깨치지 못하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다면, 숨 쉬고 있다고 해서 경사가 아니라

74) 『論語』, 「子罕篇」, “子曰譬如爲山 未成一簣 止吾止也 譬如平地 雖覆一簣 進 吾往也

75) 『十八史略』, “日出而作 日入而息 耕田而食 鑿井而飲 帝力何有于我哉”

76) 成汝信, 『浮查集』, 「和鑽兒病中述懷賦」, “期鑿井以及泉 誓爲山於九仞”

77) 李荇, 『容齋集』, 「奉別辛德優」, “夫子古大雅 學問乃素守”

78) 『靜一堂遺稿』, 「元朝敬呈夫子」

는 것이다. “아침에 道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⁷⁹⁾ 공자님께서 아침에 도를 터득 한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고 하신 뜻은 사람이 태어나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聞道의 학문을 터득하는 일이라는 뜻이고, 또한 그렇게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뜻도 되겠다. 人間事에 生死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학문을 터득하여 모든 사물의 이치에 터득 되어 진다면, 그 생사마저도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정일당은 삶의 가장 중요한 요체가 무엇인지를 일찍이 깨달은 것이다.

轉·結句에서는 이렇게 성인께서 이미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가야할 길을 알고서 가지 않아도 안 되고, 가야할 길을 간다 하면서 또한 그 마음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오로지 그 마음을 하나로 하여 흩어지지 않게 主一無適⁸⁰⁾하되 誠과 敬으로 마음을 집중하여 外物에 현혹되지 말고 오로지 지켜갈 것을 권면한다. 다음은 「主敬」⁸¹⁾이다.

萬理原天地 만가지 이치가 천지에 근원 했으니
一心統性情 한마음으로 성과 경을 통괄 한다네
若非敬爲主 만일 경으로 주장을 삼지 않는다면
安能駕遠程 어찌 능히 먼 길을 갈 수가 있을까?

공자님의 “主忠信”⁸²⁾ 가르침에 정일당은 「主敬」의 守靜를 하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만물의 이치가 천지에 근원 했으니, 그 천지가 一心이요, 그 마음을 誠과 情으로 통괄 한다 하였다. 靜하여 모든 이치를 갖춘 것이 性이지만, 이 성을 담아서 신고 있는 것은 心이 되고, 動하여 만사에 應하는 것이 情이지만, 이 情을 쓰는 것도 心이기에 心이 誠과 情을 통솔한다는 心統性情의 妙理를 터득하였다. 시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一心의 운행을 誠과 敬으로 하지 않는

79) 『論語』, 「里仁」 “子曰 朝聞道 夕死 可矣”

80) 『論語』, 「學而」,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註 “敬者 主一無適之謂”

81) 『靜一堂遺稿』, 『主敬』

82) 『論語』, 「學而」, “主忠信”

다면, 어찌 먼 길에 이를 수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一心이 性情을 통솔하고 있으므로 마음이 먼저 다스려지지 않으면 性情을 보존 통솔 할 수 없어 원대한 궁극적 군자가 가야할 목표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을 기르지 않고 참 성품을 보존 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뜻으로 인간의 본심을 보존하고 선한 성을 기르면⁸³⁾ 궁극적으로 도덕적 완성자인 군자가 된다고 보았다. 다음은 「敬次尊姑只一堂韻」⁸⁴⁾이다.

下學須敦倫 아래로 배워 모름지기 윤리 도타이 하여
慈幼且安老 어린이에 자애롭고 노인을 편안케 하네
直轡從此行 고삐를 바로 잡고 이 대로 쫓아간다면
自是坦坦道 저절로 이것이 평탄한 도리인 것이지요.

정일당의 삶과 학문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남편 외에 중요한 또 한사람을 들라면 只一堂이다. 시어머니 只一堂의 시에 차운⁸⁵⁾하였다. 原韻의 結句가 “只要一善道”로 只一堂의 삶의 내용 또한 ‘善道’로 觀照되어지고 며느리 정일당에게 끼친 영향의 내용 중 한 단면인 것이다. 起句에서 아래로 배워 삼강오륜에 두터이 하리라는 素守이다. 起句를 보면, 『論語』의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며 아래에서부터 배워 위로 통달하니, 나를 알이주는 이는 하늘뿐인가?⁸⁶⁾는 하늘도 사람도 원망 할 일이 아니고 자신이 가장 근본 되는 일부터 아래로 人事를 배워 위에 도달한다는 뜻이다. 下學上達은 학문의 요체로 이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지만, 실천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承句에서 이러한 하학상달의 요체를 어린이에게 자애롭게 하고 노인 어른을 편안히 모시는 일이라 하였다. 이것이 바로 근본 요체이기에 시의 후반부에서는 마음의 고삐를 바로 잡고 이대로 五倫의 행실만 따라간다면, 저절로 도리의

83) 『孟子』, 「盡心章上」,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84) 『靜一堂遺稿』, 「敬次尊姑只一堂韻」

85) 『靜一堂遺稿』, 原韻 “春來花正盛 歲去人漸老 歎息將何爲 只要一善道”

86) 『論語』, 「憲問篇」,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평탄한 이치일 것이라 하였다. 다음은 「除庭草」⁸⁷⁾이다.

小鋤理荒穢 작은 호미로 우거진 잡초를 다스리니
 快雨灑塵埃 시원하게 내리는 비 티끌을 씻어 주네
 縱愧濂翁意 비록 염계 선생 뜻에는 부끄럽겠지만
 山茅舊逕開 산 속 띠 집에도 옛 지름길이 열리네.

坦園의 일상이 정일당의 삶이었다. 起句에서 坦園에서 무성한 잡초를 뽑고 있다. 마치 陶淵明의 「歸田園居」⁸⁸⁾에서 보여 지는 전원생활 같다. 하지만 탄원의 정원을 가꾸는 정일당에게서는 『정일당유고』 전체 속에 들어 있는 그의 素守의 意識으로 보자면, 단순히 전원을 가꾸는 마음만이 아닌 간결한 언어 이외에 드러나는 뜻이 선명하다. 정일당이 탄원의 무성한 잡초를 제거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려진 迷惑이 있다면, 그것을 단번에 베어 내리라는 끝없는 자기 수양 일면인 것이다. 이렇게 정원의 잡초를 제거하고 나니, 시원한 비가 모든 티끌을 씻어 준다. 轉結句에는 비록 염계가 무성한 정원의 잡초를 제거한 뜻에는 부끄럽지만, 탄원에도 三徑의 지름길이 생겨난 듯하다고 하였다. 三徑은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세 오솔길이 거칠어졌으나, 술과 국화는 아직 남아 있네⁸⁹⁾”라고 하였고, 蔣詔의 三徑⁹⁰⁾이 있다. 이와 같이 정일당은 탄원에 三徑을 열어두고 어진 士友와 書堂의 學童들을 맞이하며 늘 安分自足하며 부덕과 학문을 실천하였음을 찾아 볼 수 있었다.

87) 『靜一堂遺稿』, 「除庭草」

88) 『陶淵明集』卷二, 「歸田園居」, “種豆南山下 草盛豆苗稀 晨興理荒穢 帶月荷鋤歸 道狹草木長 夕露沾我衣 衣沾不足惜 但使願無違”

89) 『古文眞寶』, 「歸去來辭」, “三逕就荒 松菊猶存”

90) 漢나라 蔣詔가 杜陵에 은거하면서 三徑을 松·竹·菊을 심고 벗인 求仲과 羊仲 두 사람만 내왕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故事. 『蒙求集註』「蔣詔三徑」

V. 結論

이와 같이 조선시대 호서지역 여류 문인 중 한사람인 姜靜一堂의 삶과 시문학 세계를 『靜一堂遺稿』를 통해 고찰하였다. 정일당의 삶과 시 문학 세계를 알 수 있는 자료로 『靜一堂遺稿』가 남아 있기에 문혀 지지 않은 것이다. 姜元會의 6張 1葉의 분량에 해당하는 「行狀」 내용에서 정일당의 모습을 생생히 만나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소략하게 드러난 면에 관심을 두고자 했다. 『靜一堂遺稿』 개관에서 서지사향과 원문의 誤字를 천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靜一堂의 삶에 드러난 樣相을 婦德의 實踐과 安分の 處世로 그 특징을 볼 수 있었다. 「行狀」에 기록되어져 있는 정일당의 家系 및 삶 속에 그의 婦德의 實踐이 면면히 들어 있었다. 남편과 比翼鳥 連理枝의 인연을 학문으로써 절차탁마하는 부덕을 행하였으니 윤광연이 부인을 스승이라 할 정도로 학문과 삶 속에서 부덕을 행하였다. 가난을 淸貧의 樂으로 여겨 지족한 삶을 살아내며, 書堂의 學童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의 교육적 處世 등 정일당의 삶에 드러난 諸樣相은 오늘날에도 귀감이 되기에 부족하지 않다 하겠다.

정일당의 시문학세계는 慕古의 工夫와 素守의 意識으로 대별하여 고찰하였다. 정일당의 시문학 작품 속에는 閨房의 情緒는 찾아 볼 수 가 없었고, 오로지 성현의 가르침을 익혀 따르고자 하는 慕古의 공부에 힘쓴 내면이 아무런 꾸민 없이 간결하게 남아져 있었으며, 철저히 경전을 바탕으로 하였음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으며, 정일당의 학문 깊이를 가히 짐작케 하였다. 또한 정일당이 평소 가장 주력했던 修身의 내용이 中和와 誠敬을 통한 素守였음을 그의 詩囊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學問凡節教育愛·疏通의 處世·楷書 등 강정일당의 삶과 학문 세계를 필자의 얇은 식견으로 다 헤아려 낼 수 없었지만, 위와 같이 고찰한 바로 강정일당은 조선시대뿐 만이 아니고 현대적 의미에서도 家庭社會教育에 바람직한 女中君子의 表象이라 할 만하다.

<參考 文獻>

『論語』, 『孟子』, 『小學』, 『古文眞寶』, 『近思錄』

姜至德, 『靜一堂遺稿』(한국문집총간 속 111집)

李 滉, 『退溪集』(한국문집총간 29~31집)

김남이, 「姜靜一堂의 ‘代夫子作’에 대한 고찰 -조선 후기 사족 여성의 글쓰기와 학문적 토양에 관한 보고로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이영춘, 『한 조선 여성 지식인의 삶과 학문』, 가람기획, 2002.

李慧淳, 「姜靜一堂의 禮 담론 : 조선후기 女性知性史 서술의 일환으로」, 『語文研究』 127호, 韓國語文教育研究會, 2005.

이종묵, 「강정일당의 삶과 내조의 글쓰기」, 『도서관』 통권387, 국립중앙도서관, 2013.

장인자, 「강정일당의 문학 연구」, 충남대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07.

조평환, 「姜靜一堂 詩文의 내용적 특성에 관한 연구」, 『溫知論叢』12집, 온지학회, 2005.

Abstract

GangJeongildang's Life Phase and Poem world

*/ Kim Mi-seon**

This study was considered GangJeongildang(姜靜一堂)'s life and poem world through Jeongildangyugo(『靜一堂遺稿』) who was as a person of woman literary in Hoseo area Yi dynasty. As data can be known her Jeongildang's life and poem literature world, that is to say, Jeongildangyugo(『靜一堂遺稿』) which had left and did not diminish. I can vividly meet Jeongildang's figure from Haengjang(「行狀」)which corresponds to contents of 6 chapters and 1-folious(6張 1葉) quantity by Gang, Wonhoe(姜元會). In this study, I intend to interest in a short aspect of during proceeding study. In the Jeongildangyugo(『靜一堂遺稿』) survey I searched bibliography data and a wrong word (誤字)of the text.

Based on this, it can be seen that practice(實踐) of womanly virtues(婦德) content conduct of life(安分ui 處世) in Jeongildang's life aspects characters. I consider to divide into two general classification of Jeongildang's poem literary world such as Mogo(慕古)'s learning and Sosu(素守)'s consciousness. In the poem literary works by Jeongildang it can not be searched emotion of women's quarters(閨房ui 情緒) but there were left shortly and simply no ornament the inner mind studied Mogos exert herself which only intended to learn and follow the sages teaching. The remarkable characters which based on scriptures thoroughly. So I could rightly guess Jeongildang's study profundity.

* Prof of Cheongju Univ. / hawoodang@hanmail.net

Ut supra(As mentioned above) consideration, GangJeongildang was worthy of a desirable virtuous lady symbol(女中君子ui 表象) in domestic and society and education (家庭·社會·教育)not only the Choson Period but also modern meaning.

【Key words】 GangJeongildang, education, Jeongildangyugo, lady symbol

투고일 : 5월 18일, 심사일 : 6월 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